



글로벌 물류강국 기반 마련 위해 올해 2조4천억 투자 - 2007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 수립·시행



건설교통부는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정보화·표준화·산업 지원 등 물류분야의 종합계획인 '2007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물류시행계획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작년 8월에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06~'20)'을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세부계획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선호하도록 물류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게 된다.

인천공항 2단계 공사는 6,570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공정률 88.2%를 달성하고, 부산·광양항과 배후물류단지 개발에도 1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금년 9월에는 광양항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며, 인천공항 물류단지 30만평의 추가 개발도 하반기부터 착수한다.

2010년까지 전국 5대 권역별로 총141만평을 조성할 복합물류기지 건설도 금년에 중부권(충북 청원·충남 연기, 5월 착공)과 영남권(경북 칠곡, 3월 착공)은 공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금년도 복합물류기지 건설에 전년대 비교하여 140억원이 증가한 926억원을 투자한다.

또 유통단지는 '08년까지 전국 13개소, 총 127만평 개발을 목표로 금년에는 5개소(45만평)를 준공하고,

5개소(48만평) 조성 공사를 추진한다.

대규모 화물취급역에는 컨테이너 야드(CY)를 확장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등 철도 배후물류기지를 개발한다.

둘째, 지능형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인프라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물류분야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착수하며, 항공물류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 분산된 물류정보를 통합·연계하기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0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출·입 기업에게는 화물 예약, 선적자동화 서비스, 체계적인 추적 정보 제공 등 민간기업의 유통·물류 정보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우수 물류전문기업을 발굴하고,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토대로 우수 물류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인증할 계획이며,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경보를 발령하는 조기 경보제를 도입하고, 우수 화물운수업체에 대한 인증제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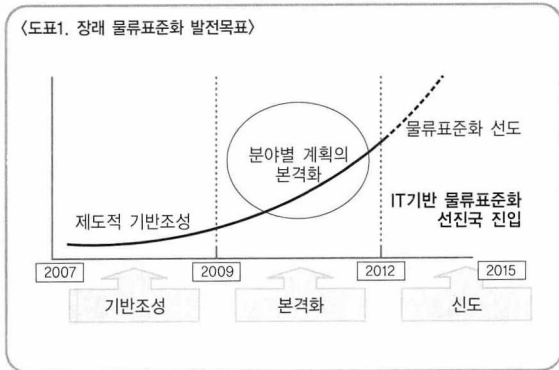
기업의 국제복합운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한·중간에 새로운 복합운송시스템인 RFS(Road Feeder Service)를 7월에 청도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계하여 우선 도입한다.

물류전문인력을 지속 양성(금년도 55억원 투자)하고, 국제물류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금년부터 물류관리사 시험에 국제물류론을 추가한다.

정부는 금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물류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



2012년 물류표준선진국 진입 목표, 국가물류표준화 로드맵 발표



건설교통부는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물류비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국가물류표준화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물류산업이 시스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류표준화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추진되어 분야별 인터페이스가 안 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워,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국가물류표준화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분산된 물류표준화 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체계를 정립하고, 변화하는 물류표준화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류표준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분야별(포장, 보관, 수송, 운반하역, 정보화, 기반역량 등) 국가물류표준화 Road-map을 제시하고, 국제물류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며 주변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하여 세계물류표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2012년까지 「IT기반 물류표준화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 이를 위하여 연계수송시스템표준화, 보관시설 표준메뉴얼(Lay-out) 개발, 운반하역기표준화 등 94개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투자(약

192억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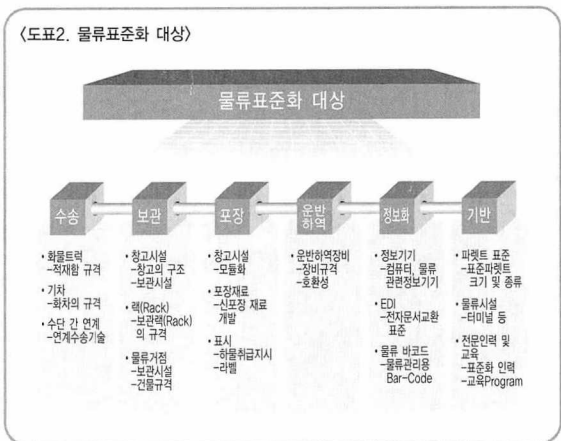
둘째, 국제물류표준화기구의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물류표준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물류표준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분야별(포장, 수송, 보관, 운반하역, 정보화, 기반역량강화 등) 구체적인 물류표준화 Road-map이 제시되어 있다.

그밖에, 물류표준화의 기반역량강화를 위해 물류표준전문연구기관의 육성, 물류전문가의 인재풀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교부는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2012년경에는 일본, 유럽 등과 함께 물류표준화 선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물류표준화를 통해 GDP 대비 국가물류비를 약 3~5% 절감(연간 약 3~4조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류 관제탑

▣ 포장 표준화 분야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포장 표준화 표준 모듈을 개발하고, 개발된 포장표준화 표준모듈을 산업체에서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학연으로부터 포장표준화에 대한 현황 및 효율화를 강구 하여 치수, 강도, 기법, 재료, 관리 등의 포장 표준화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선진국과의 호환 가능한 모듈을 개발하고 기존 포장 모듈의 효율성 조사한다. 특히 농수산물 등 특수제품의 포장 표준화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수송표준화 분야

화물자동차 및 철도화차 적재함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차량 화물적재함을 광폭화 할 방침이다. 또 신규 제작 화물자동차 적재함 제조 규격도 표준화를 도입하고, 파렛트 화물의 취급을 용이하기 위해서 철도화차의 적재함도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복합연계수송을 위한 첨단 물류표준화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기운영중인 선진국 첨단 물류표준화 연계수송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화물자동차 위주의 수송을 복합운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보관표준화 분야

보관시설과 수송운반하역 장비와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규모, 작업동선, 출입구 치수 등의 표준화하고, 수송수단 및 상하역장비와의 표준정합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관시설은 ULS 단위의 최적화로 유도하기위해 파렛트 랙, 슬라이딩랙 설치를 권장하며, 보관시설의 표준운영모델 및 매뉴얼을 정립하여 “보관시설 표준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결과적으로 단순보관기능보다는 가공, 조립이 가능

한 보관시설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 운반하역 표준화 분야

호환성이 부족한 장비와 비규격 표준기기를 규격화하고 운반하역설비 규격화, 안전화, 기기 능력 표시 기준을 정비하여 운반하역 설비를 기계화 또는 자동화한다는 전략이다.

물류표준시스템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물류표준화 관리지표를 개발하고, 물류표준인증의 인증수준 및 등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토록 한다.

물류품질인증제도는 개발도상국과의 상호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 정보표준화 분야

물류정보표준화를 통한 물류정보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도 노력한다.

국내 물류관련 정보망간 통합을 통한 정보 효율성을 촉진하고, 물류정보 공동화로 영세수송업체 및 개인 운송사업자의 공차율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IT기반을 통하여 해외의 선진 물류정보망 현황을 분석하고 공동연구하여 동북아 물류정보 표준화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간 자동인식 기반 물류정보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기반역량 표준화 분야

국제물류전문가 지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국제표준기구 등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물류표준화 업무 효율화를 위한 표준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국가물류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물류표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한중일간의 첨단물류시설을 국제표준화화 한다는 계획이다. **물류**

<보다 자세한 내용은 80페이지 “정책자료 2”를 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